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출처: 대한산업의학회지 2005; 17(4): 297-317

저자: 장세진 · 고상백 · 강동목 · 김성아 · 강명근 · 이철갑 · 정진주 · 조정진
손미아 · 채창호 · 김정원 · 김정일 · 김형수 · 노상철 · 박재범 · 우종민
김수영 · 김정연 · 하미나 · 박정선 · 이경용 · 김형렬 · 공정옥 · 김인아
김정수 · 박준호 · 현숙정 · 손동국

최근의 IMF 이후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흐름 속에서 구조조정(downsizing), 고용불안정 등의 외부의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다수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은 직장에서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업무과중, 업무의 자율성(결정권한)의 결여, 역할 모호성, 보상 부적절, 비합리적 권위적 직장문화 등과 같은 직업적 특성에서 발생하게 되는 직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가 갖는 내재적 위험성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의 저하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 의료이용 및 산업재해의 증가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부담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관리방안의 도입과 적용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된 측정도구를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여 직무스트레스 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 대상은 2차의 걸친 표본추출 과정에 의해 선정되었다. 1차 표본은 3개의 광역권에서 조사된 직장인 30,146명이고, 2차 표본은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대분류 및 중분류)에 따른 근로자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확률 추출되어 선정된 12,631명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전문가 회의와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상태(가족력, 질병 과거력 및 의료이용 현황), 기존의 직무스

트레스 측정도구, 1차 년도에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피로(MFS), 스트레스 중재요인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된 자료를 내적일치도 평가를 위해 신뢰도 검정을, 타당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와 평가를 위한 성별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인을 기존 연구와 외국의 연구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총 8개의 하위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들 하위 영역에 포함된 항목들은 물리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이었다. 이들 하위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총 43개 문항의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물리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가 처해있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부담 등을 측정하게 되며,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무자율성 결여”는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 예측가능성, 직무수행 권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고용 불안정성 수준을 의미하며, “관계갈등”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직체계”는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의 수준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직장문화”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설문지도 개발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측정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기본형 설문지와 단축형 설문지를 바탕으로 평가의 참고치를 제시하였다.

KOSS는 한국 특이적인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질적 방법과 기존의 표준화된 측정도구들의 검토,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들이 제시한 직무 스트레스 항목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도구로써 타당성 평

가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 산출 및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개발된 도구를

현장에서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 산출 및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이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제공 | 장 세 진〉

목록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7권 제4호)

- 물건 들기 시 허리벨트 착용에 따른 하지와 허리의 근활성도 및 각도 비교
- 김민희 · 이정아 · 정도영 등
- 표면근전도와 전자각도기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 위험요인 평가
- 강동묵 · 이철호 · 신용철 등
- 해마신경세포 발생단계별 NMDA 수용체 아단위 mRNA 발현에 대한 연의 영향
- 김태완 · 정인성 · 배재훈 등
- 근로자의 뇌 · 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 박정선
-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 장세진 · 고상백 · 강동묵 등
- 피로와 의료이용, 업무상 사고 및 질병결근
- 장세진 · 고상백 · 강동묵 등
- 어깨 근막통 증후군에서 어깨 관절운동범위에 대한 분석
- 김정수 · 김인아 · 이수진 등
- 납 노출 근로자들에서 ALAD 및 VDR의 다형질성이 조혈기능 지표에 미치는 영향
- 이성수 · 김남수 · 김진호 등
- cDNA array 방법을 이용한 망간에 노출된 흰쥐 뇌기저핵의 유전자 발현 분석
- 이채관 · 노성민 · 문덕환 등
-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의한 폐장염
- 장규진 · 박종태 · 김은경 등